

이른 봄

도종환

시인

죽은 나뭇잎 사이로 상사화 초록 잎이 올라오고
돌 틈 사이로 냉이가 잎을 올려 보내
얇은 손가락으로 바람의 온도를 만져보는 초저녁
혹한의 시간을 단 한 순간도 피한 적 없는
조릿대 뗏잎들이
산비탈로 푸른 세력을 넓혀가는
이른 봄

시련은 인내를 낳고
인내는 끈기를 낳고
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
로마서 5장 말씀을
저 앞들은 언제 읽었을까
누가 눈보라 속에서
저 앞들에게 읽어 주었을까